벽돌 한 장씩에 숨결 담긴 전탑

안동대博 '벽돌에 담긴 천년의 숨결'
12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전탑 · 모전석탑 40여 기 사진
임하사 전탑지 사리장엄구도
인도 · 중국 등 외국 탑도 선봬



법흥동 전탑(1914년)



임하사 전탑지출토 사리함, 사리병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전탑과 모전석탑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은 12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특별 전시실에서 특별전 '벽돌에 담긴 천년의 숨결'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됐고 규모가 가장 큰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을 비롯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탑과 모전석탑 40여기와 인도, 중국, 태국 등 외국의 전탑 · 모전석탑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그중 법흥사지 7층전탑과 운흥동 5층전탑, 조탑동 5층전탑 등은 100년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탑지에서 출토된 유일한 사리장엄구인 임하사 전탑지의 사리병, 관옥 구슬 등도 소개된다.

전탑은 점토를 구워 만든 벽돌(전)로 쌓은 탑을 말하며, 인도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그 유례가 곳곳에 남아 있다. 불교의 전파와 함께 중국에 전해졌으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는 숭악사 12각 15층탑(523)을 비롯해 중국 곳곳에 전탑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전이 건조물에 이용됐는데, 634년(신라 선덕여왕 3)에 조성된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전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이후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건립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색상이 다양한 전을 이용하고 각종 문양을 표현한 건조물까지 출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활과 밀착되지 않아 전탑은 많이 조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석재를 이용한 모전석탑이 성행했다.

전탑을 축조하는 데 사용된 전에는 문양이 장식됐는데, 현존하는 안동조탑동오층전탑과 여주 신륵사다층전탑에서 볼 수 있다. 조탑동전탑은 여러 번 보수를 거친 결과 시대를 달리하는 전이 섞여 있으며, 그중에 신라시대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당초문(唐草文)이 돋을새김된 전이 몇 장 남아 있어서 문양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륵사전탑도 여러 차례의 수리로 원형이 크게 변형되었으나 연주문(連珠文) 반원형과 함께 문양이 돋을새김된 전이 상당수 남아 있어서 당초에는 표면 전체를 문양전으로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탑은 우리 나라의 풍토나 민족성과 부합되지 않았던지 건립된 수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료에서 오는 취약성으로 인한 파훼로 현존한 것이 적다. 현존하는 예는 안동시의 신세동7층전탑 · 동부동5층석탑, 안동군조탑동5층전탑, 칠곡송림사5층전탑, 여주신륵사다층전탑 등이다.

안동의 신세동7층전탑은 현존 최고의 예로 추정되고 있으나 기단부는 후세의 변형으로 원형이 아니며, 상륜부에는 금동제 상륜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명장(明將)이 헐어냈다고 〈영가지(永嘉誌)〉에 기록되어 있다. 동부동5층전탑은 각층에 형식적인 감실이 설치된 점이 특이하며 상륜부는 역시 임진왜란 때 명장이 헐어냈다고 한다. 이 두 탑에는 옥개 낙수면에 기와가 입혀 있다.

모전탑은 석재를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탑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경주 분황사 석탑으로, 넓은 토석 기단 위에 안산암(安山岩)을 전(塼)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옥개석 받침과 낙수면은 모두 층단을 이루어 전탑 특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있는 '양지(良志)' 의 전탑 축조기록을 통해 모전탑에 앞서 전탑(塼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탑이 가장 많이 세워졌고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전탑의 고장' 으로도 알려진 안동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벽돌로 만든 전탑과 벽돌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만든 모전석탑을 통해 선대의 생각과 미적 감각 등을 함께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BS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방영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은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소재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을 방영한다.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은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와 BBS불교방송, CBS기독교방송, CPBC가톨릭평화방송, WBS원음방송이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이다.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44분)' 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7대 실천과제인 나, 가정, 종교, 직업, 사회, 국민, 인류 가운데 '인류' 에 해당하는 실천강령으로 "나는 하나뿐인 지구의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애쓰며 인종과 민족, 지역과 국가,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국적과 인종,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더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구호, 공생, 환경 3가지 색깔을 가진 단체와 개인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각 종단별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단체와 개인의 활동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인터뷰 당사자들의 생각과 신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각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 '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은 BBS불교방송에서 12월 24일 11시 40분, 25일 오후 1시 40분, 28일 밤 12시 40분, 30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된다.

박재완 기자

다시 보는 장엄불사 고려사경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4(보물 제751호, 1337년)

호림박물관 테마전 '장엄공덕_고려사경' 展
12월 16일~내년 2월 22일 제3전시실서

성보 중의 성보 고려사경을 만난다.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은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신사분관에서 작은 테마 전시 '장엄공덕_고려사경' 과 '장중보옥_도자소품' 을 개최한다.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장엄공덕' 전에서는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4(보물 751호, 1337년)' 을 비롯해 고려시대 사경 12건(8점 보물)의 14점과 조선시대 사경 1건 7점을 전시한다.

사경은 불교경전을 서사(書寫)하는 것을 말한다. 사경의 큰 목적은 전파와 수행 그리고 공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고 할 수 있다.

372년(소수림왕 2)에 불상과 함께 불경이 이 땅에 전해진 이래 사경은 4세기 말부터 불교경전의 보급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본이 개판된 이후부터 목판본의 유행으로 사경의 목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8세기 중엽부터 10세기를 전후해서 널리 보급된 목판본이 대량 생산되면서 경전 보급의 형태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보급의 문제가 달라지면서 사경의 목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서사의 공덕' 이라는 신앙적 불사의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의 사경은 실용성보다는 신앙적인 면이 강조된 장식경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사경의 조성은 국왕발원에 의한 금자원 · 은자원 등에서 사성됐는데, 국가의 어려움을 불력으로 구원한다는 뜻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왕실과 귀족들은 번영과 수복을 기원하거나 명복을 비는 불심을 사경공덕에 집중하여 사경을 한층 호화롭고 장엄하게 조성하는 전기를 만들었다.

고려 전기의 사경은 주로 개경의 주요 사찰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무신집권기에는 사경을 전담하는 사역원이 설치되어 매우 정교한 사경이 사성됐다. 하지만 고려 말기인 14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신분에 관계없이 사경은 일반화됐다.

고려사경은 일반적으로 경전의 겉표지를 금은니로 보상당초문을 그렸고, 안표지는 경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변상도를 금니로 그렸으며, 경문은 금

보물 8점 포함 30여 점
신앙 요소 강조 고려사경
원나라, 고려 사경승 요구

선으로 가늘게 구획하여 금은자로 쓰거나 묵서되었는데, 모든 경우 변상은 금으로 그렸다.

사경의 형태는 권자본(두루말이 형태의 책)과 절본(접는 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본이 많다. 용지는 감색종이가 많이 쓰였고, 〈화엄경〉과 〈법화경〉을 필두로 〈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부모은중경〉 등이 주로 서사됐다.

충렬왕 이후 원나라에서 사경승과 경지에 대한 요구를 여러 문헌과 비문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려사경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림박물관은 현재 1만7천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보 8건, 보물 54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호림박물관은 해마다 두세 차례 특별전을 열고 있다. (02)541-3523. 박재완 기자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500질 한정판매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